제2차 세계대전 독·소 전쟁 초기의 독일과 소련의 군사전략 비교 연구

(초기 전역: 1941. 6. 22. ~ 12. 5.)

이종호*, 전갑기**

1. 머리말
2.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3. 독 · 소전쟁의 배경과 양국의 군사전략
4. 독 · 소전쟁의 초기 전역(戰役) 경과
5. 독일과 소련의 군사전략 비교분석
6. 맺음말

1. 머리말

그 동안 한국군은 독일의 군사 사상과 전략을 부단히 연구하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시 독일에 승리한 소련의 군사전략

* 건양대학교 군사경찰행정대학원장
** 육군 대령,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박사과정

www.kci.go.kr

은 남북분단과 6·25전쟁의 원인 제공자라는 냉전적 시각에서 평가해왔다. 또한 제정러시아(소련)가 나폴레옹과 히틀러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혹독한 겨울, 광활한 영토와 진흙탕 덕분[1]이라는 서구 중심적 평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6·25전쟁에 소련의 군사고문단과 공군이 참전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북한의 군사전략에 영향을 미친 소련의 군사전략도 한국 국방관계자들은 알아야 한다. 러시아는 근대 이후에 많은 전쟁을 치르고, 지금은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군이 북한의 군사전략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미래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군사전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시사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독일의 전격전을 통한 섬멸전 전략과 소련의 전통적인 소모전 전략을 살필 수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의 독·소 전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독일군이 기습적인 공격과 전격전을 수행하여 모스크바 근처까지 진출하나, 소련군이 독일 전격전의 충격을 흡수하고 반격으로 전환한 전쟁 초기단계를 다루었다.

또한 양국이 구상한 계획뿐만 아니라 이의 수행과정에서 적용되고 수정된 군사전략의 타당성과 수행의 효율성을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군사전략의 타당성은 군사전략의 구비조건을, 전략 수행의 효율성은 군사전략의 구비조건과 리델하트가 자신의 저서, 『전략론(Strategy)』에 제시한 '전략과 전술의 진수(The concentrated essence of strategy and tactics)'[2]라는 요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양국 군사전략의 타당성과 수행의 효율성을 비교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였다.

---

1) 이런 하나의 예가 Glantz의 저서에서도 나타난다. David M. Glantz, *Soviet military intelligence in war*(Leavenworth: Frank Cass, 1990), p.40.

2) B. H. Liddell Hart, *Strategy*(New York: Praeger Publisher, 1975), p.347.

www.kci.go.kr

2.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군사전략을 수립할 때는 일반적으로 국가목표, 가용 전투력, 시간, 지형, 주도권,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구상된 군사전략에는 목표, 전투력, 시간, 결정적 회전, 제한사항(감수해야 할 위험) 등이 포함된다. 이를 수행할 때에는 상기 요소들을 융합하여 국가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실행에 노력을 경주한다. 그리고 시행된 군사전략을 평가할 때에는 계획된 군사전략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수행간에 나타난 실행 역량까지 비교해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군사전략의 구비조건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리델 하트가 제시한 전략의 핵심요소로 그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군사전략의 구비조건은 적합성(adaptability), 실행 가능성(feasibility), 용납성(acceptability)[3]을 적용하였다. 여기에서 적합성은 군사전략이 국가목표와 국방목표 달성에 기여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가 군사보다 우위에 있다는 정치우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합목적성에 초점을 두고 전략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실행 가능성은 계획한 군사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략의 실용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작전 목표(중심), 투입부대 규모, 정면과 종심의 변화에 대응할 능력, 소요시간을 살펴보아야 한다.

용납성은 군사전략 개념을 여론이 지지하고 교환되는 가치를 수용

3) 황성철, *군사전략론*(경기: 학술정보, 2003), 269~270쪽.
또한 1984년 와인버거 독트린에는 전쟁에 돌입하기 전에 요구되는 사항 및 전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사활적 국익이 걸려 있어야 한다. ②승리할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싸워야 한다. ③분명한 정치 및 군사적 목표를 추구하며 결정적인 형태의 군사력을 운용해야 한다. ④군사력의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를 재차 평가해야 한다. ⑤어느 정도는 의회와 여론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Dennis M. Drew · Donald M. Snow 지음, 권영근 옮김, *21세기 전략기획*(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345-346쪽.

www.kci.go.kr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용납성은 군과 국민, 국제규범이 수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는 최소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하는가도 포함한다. 정치적 목적이 지닌 가치를 위해 지불해야 할 희생 정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전략이 구비조건을 갖췄다하더라도 수행 과정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적의 능력과 항전방식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각자의 군사전략이 타당성을 갖추었다하더라도 전략수행의 효율성은 쌍방의 상호작용으로 반비례 관계를 형성하고, 전략의 구비조건만으로 효율성을 비교평가하는 것은 제한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변화된 상황을 인식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성한 상황에서 목표·전투력·시간에 유리한 기회를 적시에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았다. 군사전략 수행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리델 하트가 군사전략 수행의 필수 요소(essential truth)로 '교란(dislocation)과 기회의 이용(exploitation)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는 하부요소로 '전략의 진수' 8개 항목[4]'을 열거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항목을 군사전략 실행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여기에서 교란은 적 부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조직의 기능을 마비시켜 실책을 강요하여 타격의 호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적의 배후로 기동하여 적의 배비를 혼란시키고 정면의 갑작스런 변경을 강요하고,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는 방법 등으로 달성할 수 있다. 기회의 이용은 적이 이전에 범한 실책에서 벗어나거나 이전에 받은 피해에서

4) 리델하트는 "①목표(end)를 수단(means)에 맞춰라. ②항상 목적을 의식하라. ③최소예상선(a line of least expectation)을 선택하라. ④최소저항선(the line of least resistance)을 이용하라. ⑤대용 목표(alternative objective)로 전환할 수 있는 작전선(a line of operation)을 선택하라. ⑥계획과 배비에 융통성을 확보하라. ⑦상대방이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는 주력을 투입하지 마라. ⑧실패한 축선(또는 형태로)을 재차 공격하지마라."라는 "전략의 진수(眞髓)"를 제시하였다. *B. H. Liddell Hart, Ibid., pp. 348~350.

www.kci.go.kr

회복하기 전에, 또는 아군이 달성한 작전효과를 이용하여 전략 목표에 접근하는 과정이다. 이는 손자병법의 '적의 위기는 아군의 호기이다'(故善戰者, 入於不敗之也 而不失敵之敗也)나 '이미 개입된 상황에서 출발하라'는 상황 잠재력[5]과도 일맥상통한다.

3. 독·소전쟁의 배경과 양국의 군사전략

3.1. 전쟁의 배경

3.1.1. 전쟁의 원인(原因)

필자는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배경을 크게 3가지로 보았다. 첫째는 독일이 소련을 제압함으로써 유럽대륙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다.[6] 히틀러의 전쟁 목표는 대국 소련의 주변지역을 병합하고 본토 일부를 파괴하며, 그 외 지역은 독일에 예속시켜 소련을 상당기간 독일의 종속관계에 놓인 소국으로 전락시켜 식민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었다.[7] 이의 근거로는 히틀러가 1940년 7월 우랄산맥을 독일의 서부 국경으로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7월 8일에는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를 초토화시켜 양 지역에 주민이 잔류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인종-이념적 발언도 하였다.

---

5) 여기에서 상황은 미리 모델화할 상황이 아니라, 이미 개입된 상황이다. 이 상황 속에서 물리학적 의미의 잠재력(potential)이고 또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포착해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다. *출처: 프랑수아 줄리앙 저·이근세 옮김, *전략-고대 그리스에서 현대 중국까지*(경기파주: 교유서가, 2015), 32쪽.

6) 게르하르트 P. 그로스 저, 진중근 옮김, *독일군의 신화와 진실*(경기 과천: 이미지프레임, 2016), 280쪽.

7) 안드레아스 힐그루버 지음·류제승 옮김, *국제정치와 전쟁전략*(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6), 87쪽.

www.kci.go.kr

둘째는 나치즘과 볼셰비즘의 대립이다. 히틀러는 비밀지시를 통해 유대-볼셰비즘을 영원한 주적으로 간주하였다.[8] 그리고 그는 '소련의 쾌적한 지역에 독일민족을 위한 생활공간을 마련할 것이다. 슬라브 민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4개 '독일제국관구'로 분할하여 섭정을 하며 독일의 지배하에 둘 것이다. 폐허된 소련에 독일의 동방제국(Ostimperium)을 건설한다'[9]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즉, 볼셰비즘을 대표하는 소련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나치즘을 번창시키겠다는 전쟁목적이 있었다.

셋째, 히틀러는 군사력을 팽창하는 소련의 위협을 제거하려 했다. 소련은 1939년 8월 독일과 불가침조약을 맺고 폴란드로 진격하여 독일과 폴란드를 분할하고, 핀란드도 침공하였다. 1940년에 핀란드와 강화조약을 맺고, 루마니아로부터 베사라비아와 코비나를 병합한다. 그리고 소련은 불가리아가 소련의 세력권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독일은 1941년 3월에 군부대를 진주시켜 양국 간 갈등요소가 발생했다. 그리고 소련은 1940년 6월 24일 발트 3국을 병합한다. 즉, 소련은 서유럽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소련의 이런 군사적 확장은 언젠가 히틀러와 충돌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

3.1.2. 전쟁의 촉발요인

독 · 소전쟁의 촉발 원인은 주로 독일의 의도에 기인하였다. 스탈린은 영국 신문기자에게 '독일과의 전쟁을 1941년에 피한다 해도 1942년에는 불가피해질 것이다.'라는 등 전쟁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

8) 1919년 봄에 공산주의자들이 잠시 뮌헨을 통치했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히틀러는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와 경멸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 존 루카치 지음 · 이종인 옮김, *히틀러와 스탈린의 선택, 1941년 6월*(서울: 책과함께, 2006), 19쪽.

9) 안드레아스 힐그루버 지음 · 류제승 옮김, 전게서, 83~84쪽.

www.kci.go.kr

다. 군사적 준비를 갖추지 못해 최대로 늦추려는 의도였다. 또한 스탈린은 6월 22일까지도 독일이 침공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쟁을 촉발한 원인은 독일에서 찾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첫째, 히틀러는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소련을 우선 격멸하여 영국의 기대를 제거하려 했다.[10] 즉, 독일은 1940년 5월 프랑스를 점령한다. 그러나 영국은 평화조약은커녕 독일의 대륙지배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독일은 영국 본토를 침공 - '바다사자 작전(Unternehmen Seelöwe)' - 하지만, 공습만으로는 영국을 패배시킬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여겼다. 히틀러는 '영국이 기대하는 것은 미국과 소련이며, 소련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다면 미국에 대한 희망도 사라질 것이다.'[11] 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독일은 속전속결이 가능하다는 호언장담을 잠재적 적국인 소련과의 전쟁으로 전환하였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강한 육군을 보유하였고, 프랑스를 공략한 자신감에서 소련을 짧은 기간에 점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독일군 육군참모총장 할더(Halder)도 전격전을 펼친다면 8~10주 사이에 소련을 함락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셋째, 독일은 영국과 미국을 상대로 하는 장기소모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련의 원료 생산지와 공업지대를 확보해야 했다. 또한 1940년 여름경에 히틀러는 필요한 물자가 소련군의 재무장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소련이 독일의 장기적인 물자보급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판단을 굳힌 계기는 1940년 11월 12~13일 소련 외상 몰로토프의 베를린 방문이었다. 몰로토프는 소련의 경제력이 바닥났다고 언급하자, 히틀러는 그 동안 소련이 공급하던 것을 중단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정치-이념적 배경과 프랑스 함락 이후 정체된 군사적 과제를

10) Robert Kirchubel, *Operation Barbarossa, 1941(1)* (Oxford : Osprey Publishing, 2010), p.9.

11) 존 루카치 지음 · 이종인 옮김, 전게서, 39쪽.

www.kci.go.kr

해결하기 위해 히틀러는 소련 침공을 추진하였다. 1940년 12월 18일 히틀러는 소련 침공 계획인 바르바로사 작전지령을 하달했다. 독일군 참모본부는 기후조건을 고려할 때, 겨울이 오기 전인 9월 중순경에 작전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격 시기는 6월 중순 이전에는 진흙탕이 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독일은 1941년 3월부터는 독·소 경계지역에 병력을 증강하여 5월에 침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독일이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에서 영국군과의 예기치 않은 전쟁으로 이 작전은 약 5주가 연기됐다. 히틀러는 1941년 6월 21일 소련을 침공하라는 지령인 '도르트문트'를 발령하고 6월 22일 소련을 기습적으로 침공하였다.

3.2. 양국의 군사전략

독일은 전격전을 수행하여 소련군을 국경지역에서 궤멸시키는 섬멸전략을, 소련은 독일군의 전력을 고갈시키고 독일 본토까지 반격하여 격멸하겠다는 소모전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군 총참모본부는 속전속결을 통해 최후의 승자가 되고자 했다. 독일군은 전격전과 섬멸전을 혼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서 전격전은 적에게 충격을 가해 마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작전목표는 적의 중추신경이다. 섬멸전은 적 부대를 격파하고 살상하는 것을 작전목적으로 하며 작전목표는 적 부대이다.

소련은 1940년 10월 방어 전략에서 공격 전략으로, 주노력 방향도 모스크바에서 남서부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약 6개월 동안 '동원계획 41'을 발전시킨다. 이 계획은 '수일에서 2주 이전의 사전경고'를 전제로 하였다. 또한 히틀러가 기갑부대를 2배로 늘린다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12]

12) Robert Kirchubel, Ibid., p.17.

www.kci.go.kr

1941년 2월 소련군 총참모장에 부임한 주코프는 서부전선 군사전략을 방어 위주로 전환하였다. 국경선을 지탱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한' 후에 반격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는 독일군 기갑부대가 동쪽으로 유입하는 것을 허용하되 선봉부대들을 각개격파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는 "서부 국경지역 방어계획"으로 최종 결정되어 군관구를 거쳐 5월에야 각 군(army)에 하달되었다.

3.2.1. 독일의 군사전략

독일의 대소련 전쟁의 목적은 소련을 제압하여 유럽대륙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단기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영국과 미국을 상대로 하는 장기소모전을 준비하기 위해, 소련의 대규모 원료 생산지와 공업지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히틀러는 '독일 공군이 소련의 군수산업 중심지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동쪽으로 공격해야 한다'[13]는 지침을 주었다. 그리하여 최종 목표는 아르한겔스크에서 볼가 강을 연하는 선으로 하였다. 여기까지 진출하면 소련의 우랄 공업지대는 공중공격으로 마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14]

히틀러와 독일군 수뇌부는 소련은 작전종심이 깊고 정면이 넓어 일거에 점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독일의 군사전략 목표는 소련군의 주력을 국경지대에서 섬멸하고, 1941년 겨울 이전에 레닌그라드, 돈바스, 모스크바와 중부 공업지대를 점령하는 것이었다. 공격부대는 3개 집단으로 나누었다. 북부집단군은 동프러시아에 집결

13) Розанов Г. Л., *Сталин-Гитлер :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очерк советско-германских дипломат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1939-1941 гг.*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91), С. 182.

14) МО СССР,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 на 1939-1945 гг.*(Москва: Во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Союза ССР, 1958), С. 132.

www.kci.go.kr

하여 프스코프와 레닌그라드를, 중부집단군은 동바르샤바에서 민스크와 스몰렌스크를, 남부집단군은 루블린에서 지토미르와 키예프를 공격한다. 이때 북부의 핀란드군은 무르만스크-레닌그라드 통로를 차단한다.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우랄산맥과 카스피해까지 진출하는 것이었다.

주공 방향은 곡물과 석유 산지인 우크라이나, 카프카즈 방면에 두자는 히틀러와 수도인 모스크바로 하자는 군 지휘부의 의견이 엇갈려 초기작전 경과를 보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소련 전역에 투입한 독일군 전력은 판처사단 19개, 기계화사단 15개를 포함한 119개 사단으로 전차 3,350대, 포 7,184문, 차량 600,000대, 말 625,000필, 항공기 2,500대 등이었다.[15] 이는 독일 육군의 3/4, 공군의 2/3 규모였다. 바르바로사 계획의 부대편성 특징은 집단군 제1제대에 주력을 집중하는 것이었다. 공격의 핵심인 기갑부대는 1:2:1로 중부집단군에 강하게 편성하였다. 그러나 우발사태에 대비한 어떤 예비대도 편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히믈러 휘하에 4개 '특수출격대(Einsatzkommando)'[16]인 3천여 명으로 편성된 안전경찰과 안전요원들에게 독일군이 점령한 전선의 후방지역을 인수하여 점령지 내 유대인, 공산당 임원, 속칭 '아시아계 열등인간', 집시 등을 즉결처분하는 특수임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히틀러는 독일군의 소련 민간인에 대한 범죄와 범법 행위가 법의 저촉을 받지 않게 하였다. 1941년 6월에는 소련군 포로 중에서 공산주의자와 유대계 지식인을 근절하라고 지시하였다.

15) 리처드 오버리 저 · 류한수 옮김, *스탈린과 히틀러의 전쟁*(서울: 도서출판 지식의 풍경, 2003), 128쪽.
16) 리처드 오버리 저 · 류한수 옮김, 상게서, 107쪽.

www.kci.go.kr

3.2.2. 소련의 군사전략

소련의 전쟁목표[17]는 1941년 당시 소련의 서부국경을 서방 강대국으로부터 인정받고, 핀란드의 북빙양 연안의 페트사모를 병합하고, 서루마니아에 소련군 기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독일을 분할하는 것이었다.

소련은 서유럽에서 영국과 미국의 해상세력을 견제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지위를 획득하려는 의도였다. 또한 소련은 안전보장을 위해 서부국경 지역에 전략적 완충지대가 필요했다. 따라서 소련은 독일을 서유럽 지역으로 밀어붙이고, 흑해 출입항로의 통제권을 확보하려 했다.

소련은 정치적, 군사-전략적 상황을 '일본의 극동지역에 대한 동시 공격도 배제할 수 없지만[18], 독일 파시스트 블록의 소련 공격은 서부국경이 될 것이다.[19] 예상되는 적은 독일이며, 핀란드 · 루마니아 · 헝가리가 독일 편에 가담할 것이다.'고 평가하였다.

초기 전역에서 소련의 군사전략은 강요에 의한 방어, 즉 소모전전략이었다. 전략 목적은 독일군의 전격전을 무산시키고 공격력을 격파하며, 부대전개와 군수산업을 전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시간을 획득하고, 전략적 주도권을 탈취하여 군사-정치적 상황을 유리하게 변환시키는 것이었다.[20]

소련은 독일군 주공 방향을 리가 및 카우나스, 비테브스크 또는 빌

17) 안드레아스 힐그루버 지음 · 류제승 옮김, 전게서, 110쪽. 스탈린이 1941년 12월 영국 외무상 이든과의 회담에서 시사한 내용이며, 같은 해에 소련 외상 몰로토프가 히틀러와의 베를린 회담에서 밝힌 내용과 동일하다.

18) 소련은 1941년 4월 13일 일본 외상 마츠오카와 상호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정치적인 조치를 취했고, 시베리아에 있던 부대 일부를 서부로 전환하였다.

19) A. A. 코코쉰 저 · 한설 옮김, *군과 정치-러시아 군사정치 · 군사전략 사상사*(육군군사연구소: 국군인쇄창, 2016), 151쪽.

20) В. А. Золотарев, *История Военной Стратегии России*(Москва: Кучково Поле Полиграфресурсы, 2000), С. 262.

www.kci.go.kr

뉴스 · 민스크로 예상했다. 다른 부대는 브레스트 지역에서 민스크 방향으로 공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핀란드군은 서북부에서 레닌그라드를, 폴란드 남쪽의 독일군은 우크라이나 서부를 장악하기 위해 로브노와 블로다바 방향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주코프가 소련의 1940년 10월 14일 전쟁계획을 1941년 6월까지 일부 수정하였다. 소련군은 독일군의 주공 방향을 브레스트-르보프 남쪽으로 판단하여 작전계획을 완성하였다. 히틀러가 소련의 중요한 경제지역을 제거하고 우크라이나의 식량과 도네츠크의 석탄 그리고 카프카즈의 석유를 탈취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해안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이다.

소련의 군사적 목표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호하고 적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었다. 초기의 군사목표는 적의 침공을 격퇴하여 공격계획을 무산시키고 적 부대를 격멸하는 것이었다.[21] 그리고 소련 군사전략의 특징은 고도의 역동성이었다.

1941년 6월 경 소련은 전차 24,000대를 보유하는 등 일부 무장력은 갖추고 있었고[22], 보병 · 전차 · 기계화 및 기병 등 303개 사단을 계획하고 이중 1/4은 편성 단계에 있었다. 소련군은 육군을 5개 전선군으로 편성했다. 소련의 서부전선 부대들은 국경지대에 방어를 편성하여 적의 돌파를 불허하고 자군 주력부대의 동원·집결, 전개를 엄호하고, 적이 돌파할 경우 이를 격멸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소련군 지도부는 타격집단군의 편성 기간을 단축하고 적을 곧바로 포위할 수 있는 위치를 점령할 수 있는, 평시 전개지역(벨로스톡과 블로다바 돌출부)에 전투장비를 갖춘 기동부대를 배치했다.

---

21) В. А. Золотарев, Там же, С. 256.
22) 칼 하인츠 프리저 저·진중근 옮김, *전격전의 전설*(서울: 일조각, 2016), 553쪽.

www.kci.go.kr

4. 독 · 소전쟁의 초기 전역(戰役) 경과

1941년 6월 22일부터 1945년 5월 9일까지의 독 · 소전쟁은 독일의 공격, 소련의 반격으로 영토 회복, 소련의 독일 본토 공격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고찰한 초기작전은 독일군이 소련을 공격하여 모스크바에 접근하지만 공세종말점에 도달하고, 소련이 반격을 시작하는 국면까지이다. 그리고 소련군 참모본부가 1958년 제2차 세계대전 공간사에서 구분한 3단계로 작전경과를 살펴보았다.

4.1. 독일군의 기습공격과 소련군의 지연전

이 단계는 독일이 프리발트와 벨라루시 ·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에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소련군이 레닌그라드, 스몰렌스크, 키예프 방향으로 철수하는 1941년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다.

독일군의 1단계 작전목표는 드비나 강-드네프르 강을 연하는 선에서 소련군을 격멸하는 것이었다.[23] 히틀러는 전쟁 초일부터 주력을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 키예프 세 방향에 지향했다. 독일군은 180개 사단을 투입하고, 차량화 및 기갑 부대로 공격집단을 구성하고 항공전력까지 증강시켜 절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으로 주공부대를 편성하였다. 특히 소련군을 섬멸할 목적으로 전격전을 구사하여 양익 포위전술인 '쐐기와 함정(wedge and trap)' 전법을 적용하였다. 독일군은 소련 영토의 350㎞ 종심까지 항공폭격을 수행하여 소련군의 지휘시설과 항공기를 파괴하였다.

독일군은 북부집단군과 중부집단군의 제3기갑집단, 제9군 2개 군단의 40개 사단과 1개 차량화여단 중에서 판처사단 6개 등 25개 사단이 1제대로 편성하여 공격하였다.

23) 게르하르트 P. 그로스, 전게서, 285쪽.

www.kci.go.kr

반면 소련군은 국경을 따라 강력한 방어편성을 계획하였다.[24] 그러나 지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균등하게 부대를 배치하였고 전투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독일군의 기습을 받았다. 6월 22일 독일군 공격 4시간 후, 소련군 총참모본부는 지침을 하달하고 전쟁을 수행하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그리고 군관구를 전선군으로 전환했다. 또한 6월 27일 주코프는 '전차와 포는 유기하지 마라'[25]는 내용이 포함된 작전지침을 하달하고, 스탈린은 라디오 방송[26]을 통해 장기소모전을 수행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북부지역에서는 소련군 북부 전선군과 카렐스키 전선군이 핀란드와 노르웨이 국경지대를 방어하였다. 그리고 프리발트 북서부 전선군은 제8·12군의 21개 사단(보병 15개, 전차 4개, 차량화 2개)과 1개 보병여단으로 300㎞의 정면을 담당하였다. 소련군은 레닌그라드와 스타라야루사에 이르는 접근로에서 독일군의 돌파를 저지하고 발트함대의 기항인 탈린을 엄호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독일군 제18군이 리가(6월 말), 발가를 거쳐 파르누-타르투까지 진출한다. 이 과정에서 소련군은 6월 23일 샤울라에서 역습을 수행했다. 제4기갑 집단과 제16군은 카우나스-다우갑필스(6. 30.)를 거쳐 7월 9일 프스코프까지 약 500㎞를 진출하였다.

---

24) Военно-научное Управление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Отдел, *Операции советских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в период отр-ажения рападения Фашистлого Германии на СССР*(Москва: Во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СССР, 1958), С.149.

25) Richard Kirchubel, *Operation Barbarossa 1941(3) Army Group Center*(Oxford: Osprey Publishing, 2007), p.40.

26) 7월 3일 스탈린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소련군 부대들은 철수할 경우 모든 물자를 후송하든지 완전히 파괴하여 적에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 적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빨치산부대와 유격부대가 애국적 전쟁을 수행하여 적과 동조자들에게 참기 힘든 고통을 주라' 고 명령한다. 출처: Военно-научное Управление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Отдел, Там же, С.154.

www.kci.go.kr

중서부지역에서는 독일군 60개 사단(판처 9, 기계화 7)이 공격하였다. 독일군은 수발키-민스크 북쪽, 브레스트-핀스크 방향에서 주요 전투를 예상하였다. 독일군 제3기갑군과 제9군이 수발키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빌뉴스와 말라데치노를 거쳐 민스크 북방으로 공격하여 민스크를 포위하고, 비테브스크-보부루이스크 선까지 진출하였다. 제4군, 제2기갑군, 제35군은 브레스트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벨로스톡에서 소련군을 포위했다. 독일군은 계속 공격하여, 제2기갑군, 제3기갑군, 제4군, 제9군이 6월 29일 민스크를 포위하였다.

소련 서부전선군은 제3 · 10 · 4군으로 편성되어 리투아니아 경계 남쪽에서 우크라이나 북부까지 약 450㎞의 정면을 담당하였다. 소련군은 47개 사단으로 전선에 제11군 · 제3군 · 제10군(비알리스톡) · 제4군이, 종심에는 제13 · 20 · 22 · 29 · 19 · 16 · 21군이 방어하였다. 6월 23일 소련군이 그로드노 방향으로 역습을 시도하였으나 독일군의 강력한 포병과 공중 화력에 큰 피해를 입고 좌절되었다. 반면 6월 24일 빌뉴스에서 소련군 제17기계화군단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독일군 제47차량화군단을 3일간 지체시켰다.

독일군 기갑부대가 6월 29일 민스크에 도달하여 포위전을 수행하지만, 소련군이 주변 숲지대와 고지대에서 저항하여 독일군이 전력을 종심으로 투입하는 것을 8일 동안이나 지체시켰다. 이 과정에서 독일군은 소련군 약 42만 명을 포로로 하였으나, 완전한 포위망을 구축하기에는 병력이 부족했다. 그리고 히틀러는 포위망을 소탕할 때까지 기갑부대의 진격을 정지시켰다.[27]

소련군은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최고사령부 예하의 자바이칼 군관구 제16군을 스몰렌스크와 야르체보 지역에 재배치하고, 제19군의 예하 사단을 비테브스크에 배치하였다.

---

27) David M. Glantz, Jonathan M. House, W*hen Titans Clashed: How the Red Army Stoped Hittler*(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p.53.

www.kci.go.kr

한편 독일군은 7월 3일 제2 · 3기갑집단군으로 제4기갑군을, 제3기갑집단군의 보병을 모체로 제2군을 창설했다.[28] 그리고 드네프르(로가체프 방향)로 진출을 개시하였다. 그리하여 구데리안은 7월 10일 소련군이 방어하지 않은 드네프르 강 3곳으로 도하하였다.

남부지역에서 독일군은 완편된 34개 사단(판처 5, 기계화 4 포함)을 제1제대로 편성하고, 예비로 51개 사단(독일군 47, 헝가리 4)을 후속시켰다. 주공은 제6군으로 자모스찌예-지토미르 축선으로 공격하였다. 독일군은 로브노-노보그라드볼린스키로 진출하였다.

소련군 남서부 전선군은 58개 사단(보병 32, 기병 2, 전차 16, 차량화 8)으로 편성되고 부됸니 원수가 지휘하였다. 제9군으로 개편된 오데사 군관구는 루마니아를 포함한 450㎞의 정면을 담당하고 있었다.

소련군 총참모본부는 6월 25일 수세보-비테브스크-모길레프-드네프르 강을 연하는 선에 방어지대를 편성했다. 그리고 부됸니 원수를 사령관으로 하여 제20 · 21 · 22군을 배치하였다.

같은 날 소련군 제9기계화군단은 클레반니 남쪽으로, 제19기계화군단은 로브노에서 두브노 방향으로 반격하였다. 제19기계화군단은 독일군을 25㎞ 후방으로 격퇴하지만 인접부대와 협조가 미흡하여 전과확대를 못하고 독일군이 증강되자 후퇴하였다. 소련군 총참모본부는 독일군의 진출에 따라 남부전선군이 테르노폴(르보프 동쪽 약 100㎞) 지역에서 포위될 것을 우려하여, 7월 9일 전선을 카로스텐-지토미르-카메네츠포돌스키로 조정하여 120~200㎞를 후퇴했다. 소련군은 7월 9일 베르디체프로, 다음날 지토미르 서쪽에 역습을 감행하였다. 이 결과 독일군의 키예프 진입이 3일 동안 지체되었다.

제1단계 작전 후 접촉선은 파누르-타르투-프스코프-드리사-비테브스크-로가체프-사르니-지토미르-베르디체프-카메네츠포돌스키-모길레프포돌시키-두나이 강을 연하는 선이었다.[29]

---

28) Richard Kirchubel, Ibid., p.46.

www.kci.go.kr

독일군은 국경을 통과하여 450~600㎞를 진출하였으며, 벨라루시 대부분을 점령하고 스몰렌스크를 돌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독일은 주공을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로 지향한다.

4.2. 독일군의 전략목표 조정, 소련군의 개편과 공세행동

이 단계는 1941년 7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이다. 소련 국방위원회는 7월 10일 스탈린의 지휘를 받는 최고사령부 예하에 총참모본부로 개편하고 3개 전선군(북서부, 서부, 남서부) 사령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소련군은 독일군이 공격하는 전선지역으로 부대를 전개하여 역습을 병행하는 방어작전을 수행하였다.

독일군은 7월 16일 스몰렌스크를 포위하고, 모스크바에 대한 공중공격을 개시한다. 7월 19일에는 중앙집단군 기동부대 일부를 지원하여 우크라이나의 소련군을 격멸하고,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 간을 차단하기로 하였다. 독일군 최고사령부는 7월 30일 모스크바 방면에서 소련군의 저항이 강력하자 방어로 전환하고, 북부에서는 레닌그라드를 점령하고, 남부에서는 키예프를 점령하고 프라바베레즈나야 우크라이나에서 소련군 서남부·남부 전선군을 격멸하고 돈바스 공격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기로 한다.[30] 히틀러는 8월 21일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여 키예프 지역에 있는 소련군을 포위섬멸한 후 중부집단군은 모스크바를 공격하고, 남부집단군은 카프카즈 방향으로 공격하여 소련의 석유 보급을 차단하는 명령을 하달했다.

9월 하순에는 열악한 도로와 악(惡)기상으로 독일군의 기동력이 저하되었다. 키예프 함락 이후 독일군은 레닌그라드를 보조 목표로 변경하고 지상포위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히틀러는 모스크바를 점령하

29) Военно-научное Управление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Отдел, Там же, С.147.

30) В. А. Золотарев, Там же, С.302.

www.kci.go.kr

고 남부지역으로 전과를 확대하려고 전투력의 분산을 초래하였다.

북부지역에서는 독일 북부집단군이 6개 판처 · 차량화 사단을 포함한 22개 사단을 동원하여 레닌그라드 점령을 시도하였다. 소련군은 스타라야루사 동쪽 지역에서 7월 14일부터 5일간 역습을 실시하여 독일군을 40㎞ 후방으로 격퇴하였다. 소련군의 강력한 방어작전으로 8월 초 레닌그라드 북쪽과 남서쪽에 대한 독일군의 공격은 일시적으로 저지되었다. 소련군은 9월 1일 제23군을 투입하여 독일군의 진격을 정지시켰다. 9월 말 독일군은 방어로 전환하고 레닌그라드 북쪽 전선은 1944년까지 유지되었다. 또한 소련군 제8군은 레닌그라드 남서쪽에서 독일군 제18군의 전투력을 소모시켰다.

소련군은 원활한 지휘를 위해 북부 전선군을 해체하고 카렐리야 전선군과 레닌그라드 전선군으로 재편성하였다. 그후 레닌그라드 방어전투를 단일지휘체제로 수행했다.[31] 독일군은 9월 28일 라도가 호에 도달하고 900일간의 레닌그라드 포위전이 시작되었다.

중부지역에서 독일군이 소련군 서부전선군을 격멸하고 모스크바로 진출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스몰렌스크를 집중 공격하였다. 독일 중부집단군, 북부집단군의 제16군 2개 군단 등 총 63개 사단이 공격하였다. 독일군은 민스크 서쪽에서 소련군의 저항을 극복하고 포로츠크-민스크-보부루이스크 서쪽을 연하는 선을 확보하고 드네프르 강 방향으로 공격을 확장하였다. 소련군 서부전선군은 벨라루시 서부와 중부 지역에서 철수하여 드네프르 강 일대에서 재편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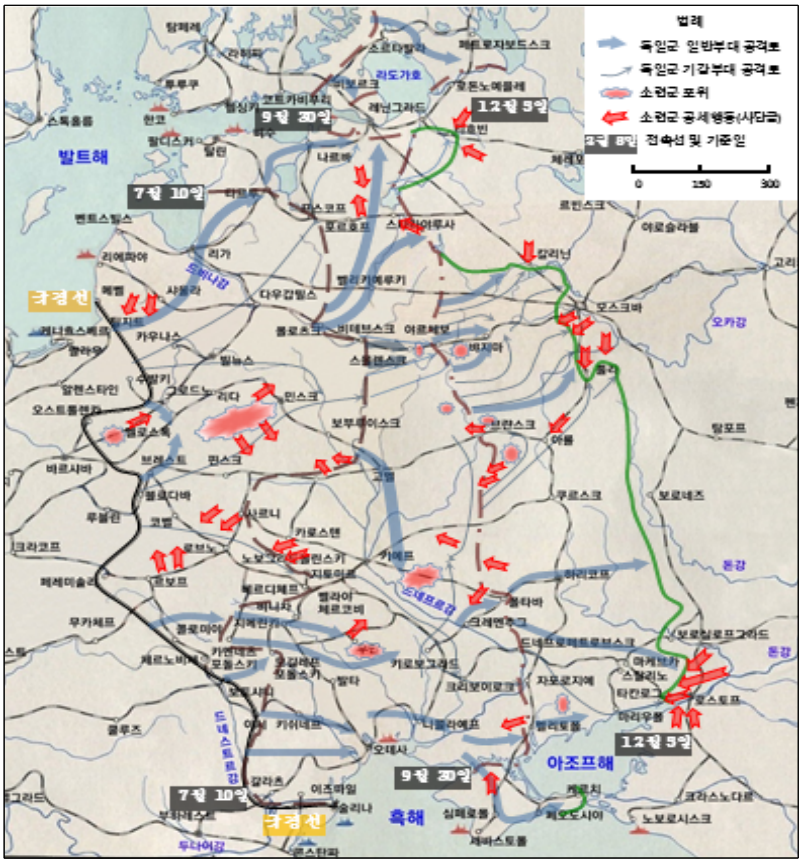
독일군이 7월 16일 스몰렌스크를 포위하고 소련군 18만 명을 포로로 하였다. 그러나 티모셴코 장군의 소련군이 반격하여 독일군 5만 명을 살상하였다. 이때 구데리안은 소련군을 추격할 생각이었다. 그

31) Военно-научное Управление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Отдел, Там же, С.177.

www.kci.go.kr

러나 히틀러는 레닌그라드와 우크라이나를 주목표로 한 초기 구상을 실행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는 위협받는 모스크바에 소련군 예비 병력이 집결할 것이기 때문에 레닌그라드와 우크라이나의 점령이 용이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렇게 되면 레닌그라드와 우크라이나에서 초대형 양익포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독·소 전쟁 초기전역 상황도32)



32) 지명은 МО СССР,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 на 1939-1945: краткий военно-ис торический очерк. Альбом Схем.* (Москва: Во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Минис 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Союза ССР, 1958)에 표기된 것을 사용하였다. 요도는 필자가

www.kci.go.kr

독일군은 7월 19일 드네프르 강과 데스나 강 중간지대를 소탕하면서 중부집단군 기동부대의 절반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남부집단군을 지원하여 소련군을 격멸하고, 절반은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 간의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하여 북쪽에 운용하기로 하였다[33]. 나머지 도보부대는 모스크바를 정면에서 공격할 계획이었다. 한편 독일군은 항공기 1,500대를 중앙 집단군에 할당하고 7월 21일 모스크바 공습을 시작했다.

히틀러는 9월 6일 뱌즈마, 브랸스크에서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태풍작전" 명령을 하달하였다. 독일군은 9월 19일 키예프 포위전에서 승리하여 남부지역에서 위협이 제거되자, 모스크바 대공세를 시작했다. 독일군은 모스크바에 집중하기 위해 일부 전투력을 전환하는 등 레닌그라드 공격 강도를 낮췄다. 독일군 기갑부대가 10월 15일 모스크바 서쪽 약 130㎞ 지점까지 접근하였다.

소련군은 '모스크바로 향하는 적의 돌파를 저지하고 지상군과 항공전력을 이용한 역습을 통하여 적을 격멸하는' 계획을 시행했다. 소련군 제4군은 카로스텐 방어지대에서 독일군에게 큰 타격을 가하고, 제26군은 키예프 남쪽 벨라야체르코비 방향으로 반복적인 공격을 가했다. 그리고 우만 지역 등에서 역습을 수행하였다.

독일 남부집단군은 남부 전체를 점령하기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해안지역에서 소련군을 격멸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였다. 키예프를 점령하기 위해 제1기갑군을 포함한 독일군 주력이 지토미르와 키예프 방향에 집중하였다. 7월 7일 제13판처사단이 베르디체프에 도달하고, 이틀 후 제14판처사단이 지토미르를 점령하였다. 한편 소련군 키르포노스 부대가 7월 13일 지토미르 통로에 역습을 가하고, 제26군이 독일군 제1기갑군을 공격했다.

그러나 독일군 제6군이 7월 30일 키예프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했

편집하였다.

33) David M. Glantz, Jonathan M. House, Ibid., p.75.

www.kci.go.kr

다. 독일군 제1기갑군이 북쪽으로, 제2기갑군이 남쪽으로 우회하여 동쪽에서 연결하여 9월 17일 키예프를 항아리형으로 포위하자, 소련군은 26일 항복했으며 52만 7천 명이 사망했다.

1941년 7월 말부터 소련군의 강력한 저항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스몰렌스크 회전에서 독일의 공세가 주춤해졌다. 이 무렵 독일군은 '일반주민(비전투원) 섬멸전투'를 곳곳에서 수행했다.[34] 즉, 조직적인 학살을 자행한 것이다. 주민들이 이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소련군 제5군과 키예프 지역에서 방어하던 부대는 포위가 된 후에도 계속 저항하여 카로스텐은 8월 말까지, 키예프는 9월 말까지 지탱하였다. 독일군 제6군을 키예프 정면에서 저지하고 프리페트·마시즈크 동쪽에 후퇴해 있던 강력한 소련군이 독일 중부집단군 우익과 제6군 좌익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독일군 제1기갑군이 7월 하순 키예프 남쪽 벨라야체르코비에서 국부적인 돌파를 수행하고 키로보그라드 방향으로 우회하였다. 이리하여 우크라이나 공격로를 개방하고 흑해부근에서 루마니아군과 대치하던 소련군 배후를 위협하였다. 8월 중순 니콜라예프에 도달하여 차출된 중부집단군 일부 부대가 남쪽으로 진격하고 키예프 주변과 그 북쪽에 있던 소련군의 저항을 극복하고 이를 포위할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동계작전 준비가 부족하여 이를 수행하지 못했다. 대신에 키예프 동쪽 240㎞까지 포위하여 소련군 60만 명을 포로로 하였다. 키예프 함락 후 남부집단군은 흑해연안을 소탕하고 도네츠크 공업지대를 점령하여 카프카즈에 도달한다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기간에 소련군은 북서방면에서는 150~250㎞를, 서부방면에서는 170~200㎞를, 남부에서는 500㎞를 후퇴하였다. 독일군은 9월 7일 드네프르 강과 드비나 강 서안에 도달하고 9월말 하리코프와 돈바스, 크림반도까지 진출하였다. 그리고 레닌그라드의 지상봉쇄를 완성

34) 안드레아스 힐그루버 지음·류제승 옮김, 전게서, 101쪽.

www.kci.go.kr

하였다. 그러나 독일군 주력부대인 판처사단들의 전투력은 8월 말 50% 이하로 저하되었다. 독일군은 대규모 부대를 집결하여 10월 초에 모스크바 공격과 돈바스를 공격할 능력을 확보했다.

4.3. 독일군의 공세종말점 도달, 소련군의 반격 개시

제3단계는 1941년 10월부터 12월 초까지이다. 히틀러는 10월 2일 중부집단군에 모스크바 진격명령("태풍작전")을 하달했다. 10월 12일에는 모스크바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쪽으로 진격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11월 15일 모스크바 공격을 재개하였다.[35] 독일군은 뱌즈마 부근에서 소련군 60만 명을 포착하지만 겨울이 닥쳐 전과 확대는 실패하였다.

북부지역에서는 레닌그라드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중부전선에서는 소련군이 방어와 철수를 반복하였다. 독일군의 모스크바 진격 소식을 접한 스탈린은 10월 16일 정부를 볼가 강변 사마라로 이동시키고, 자신은 모스크바에서 전쟁지휘를 계속하였다. 특히 모스크바 접근로인 칼리닌에서 칼린전선군과 툴라 지역에서 브랸스크전선군의 공세행동으로 독일군의 전투력이 분산되었다. 10월말 독일군 제4기갑군의 모스크바 공격은 크류코보(모스크바 북쪽 40㎞), 나로포민스크(모스크바 남서쪽 60㎞), 툴라를 연하는 선에서 멈추고 공격력이 소진되었다. 남부지역에서는 소련군이 독일군을 로스토프에서 타간로그 서측으로 격퇴하였다.

소련군은 11월 18일부터 툴라에서, 12월 1일 나로포민스크에서 독일군 공격을 격퇴하는 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11월 중순에 티흐빈(레닌그라드 서쪽)과 로스토프 방면에서 소련군이 공세로 이전하여 독일 중부집단군의 전력증원을 무산시켰다.

35) David M. Glantz, Jonathan M. House, Ibid., p.83.

www.kci.go.kr

스탈린은 11월 30일 반격을 실시하여 모스크바에 대한 독일군의 위협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후방에 대기하던 소련군 12개 군(58개 사단) 이상이 12월 5일~6일 모스크바 전역에서 최초로 반격을 전개하였다. 이는 독일의 바르바로사 작전의 지연과 '전격전'의 실패를 의미했다.

한편 남부방면에서는 소련군이 9월 29일부터 한달간 돈바스 방어작전을, 11월 5일부터 약 10일간 로스토프 방어 작전을 수행하였다. 특히 소련군은 11월 21일 병참선의 측방을 공격하여 로스토프를 탈환하고, 11월 30일 독일군 제3기갑군을 타간로그 서쪽으로 격퇴했다.

독일군은 11월 말까지 26개 사단과 13개 여단을 잃었고, 9월 말 24개 예비사단도 궤멸하였다. 독일군 전사상자는 75만 명에 달했다. 소련군은 전사 260여만 명, 포로 335만 명의 피해를 입었다.[36]

5. 독일과 소련의 군사전략 비교분석

양측이 구상한 군사전략의 타당성과 전략수행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군사전략이 국가 및 국방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는가라는 적합성 면에서, 독일의 군사전략은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어렵고, 소련의 군사전략은 병력 및 산업동원능력 등을 고려 시 적합했다고 판단된다.

독일 정부와 군부는 소련의 주요산업지대를 점령하여 경제가 마비되고 붕괴되면 소련이 항복하리라 판단했다.[37] 그러나 1940년 8월 소련 군사연구보고서 등에 따르면, 소련은 실질적이고 건실한 산업동

36) 리처드 오버리 저 · 류한수 옮김, 전게서, 167쪽.
37) 게르하르트 P. 그로스, 전게서, 290쪽.

www.kci.go.kr

원능력이 동부로 이미 소개(疏開)하였다. 즉, 소련은 서부의 산업지대가 피해를 입더라도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독일은 1941년부터는 모든 것을 점령하고 방호하려는 무모한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서쪽 배후의 위협(영국과 미국)을 제거하지 않았고, 1941년 2월에는 이탈리아의 요청으로 로멜의 아프리카군단을 트리폴리에 파견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소련을 공격하는 양면작전을 결심한 것은 독일이 전략적 질곡과 파행을 거듭하는 전기(轉機)가 되었다.

반면에 소련은 독일군 전격전의 예봉을 흡수하고 방어간 공세행동과 초토화 작전을 통하여 독일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반격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장기소모전 전략은 적의 침공을 격퇴한다는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소련은 대(對)나폴레옹 전쟁 등 침략에 저항했던 민족적 근성, 막대한 동원능력 등 장기소모전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저력이 있었다.

군사전략의 실행 가능성 면에서, 히틀러의 '전격전'에 의존한 단기결전은 실행 가능성이 적었다. 반면 소련은 영토의 종심 · 정면과 동원능력을 이용하고 부단한 공세행동으로 장기소모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독일군은 전격전을 수행하면 수주 안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38] 문제는 독일 군부가 3~4개월 사이에 소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39] 이는 소련 정부와 후방이 견실하지 않으며, 소련군은 약하며 강하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독일군이 기습적이고 강렬하게 공격하면 소련군 주력을 격멸하고, 종심으로 신속히 기동할 수 있다는 편견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의 지형 특성상, 독일군의 공격정면은 최초 2,000㎞에서 작전이 진행되면서 3,000㎞ 이상으로 확장되고, 보급로 길이는

38) 안드레아스 힐그루버 지음 · 류제승 옮김, 전게서, 64쪽.
39) МО СССР, Там же, С. 131.

www.kci.go.kr

4,50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작전목표는 최초 집결지로부터 약 1,500㎞ 이상 이격되어 있었다. 또한 독일은 정치적(레닌그라드, 모스크바), 경제적(카프카즈 유전) 목표 지점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군사력 부족을 초래하고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카프카즈와 스탈린그라드까지 동시에 공격하는 작전은 독일군 첨단의 공격기세를 상실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독일군은 157개 사단 중 16개 사단만이 차량화 부대였으며 소련을 대상으로 전격전을 수행할 능력은 부족하였다. 10개의 기갑사단, 6개의 차량화보병사단을 포함한 총 77개 사단만이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독일군 육군총사령부의 자료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는 판처사단 2개, 보병사단 3개를 포함하여 8~11개 사단 정도였다. 그리고 기계화부대를 운용하기에 부적절한 기후조건과 깊은 종심에 대한 경고도 있었으나 독일군 지휘부는 이를 무시하였다. 즉,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중시한 '가능성의 한계(die Grenze des Mőglichen)' 원칙[40]을 경시한 결과이다.

한편 소련은 서부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국경지대 방어를 위한 계획을 조정하였으나 준비를 완료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소련은 저격수, 통신병, 기마병, 운전병, 조종사 및 공수병 등 약 1,300만 명을 훈련시켰다. 소련군은 1941년 6월 22일 전까지 약 500만 명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소련은 철강 산업의 37%, 석탄 산업의 35%, 에너지 산업의 25%를 독일군이 접근할 수 없는 동쪽에 집중시켜 산업동원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1941년 11월 독일군이 점령한 지역은 소련 석탄의 63%, 정련된 주철의 68%, 알루미늄의 60%를 생산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1941년 전반기와 후반기의 무기 생산량을 비교해보면 전차는

40) 권터 블루멘트리트 지음·류제승 옮김, *전략과 전술 - 페르시아 전쟁에서 20세기 핵전쟁까지*(서울: 한울아카데미, 1994), 317쪽.

www.kci.go.kr

1,800대에서 4,742대로, 야포과 박격포는 5131문에서 1 5,727문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인구도 약 2억 명으로 병력동원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피점령 지역의 초토화에 대한 경험을 가진 국민이 있었다.

군사전략의 용납성 측면에서, 독일은 국제규범과 도덕적 규범을 무시하였다. 히틀러는 히믈러 휘하에 총 3천여 명인 4개 '특수출격대'를 편성하여 독일군이 점령한 전선 후방지역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점령지에서 공산당 임원, 속칭 '아시아계 열등인간' 집시 등이 포함한 모든 유대인 총살 권한이 1941년 5월 이들에게 부여되었다. 또한 1941년 5월 13일 공포된 '총통칙령'에 따라 이 부대는 소련군 정치인민위원을 즉결처분하고, 독일군은 소련 민간인들에 대한 범죄 및 범법행위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1941년 6월에 내려진 코미사르 명령에서 독일군은 소련군 포로 중 공산주의자와 유대인 지식인들을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독일군은 전쟁기간 동안에 60만 명으로 추산되는 소련군 포로를 처형하였다.[41]

교란은 적 부대의 균형을 파괴하고 기능을 마비시켜 적에게 실책을 야기하고 타격의 호기를 만드는 것이다. 독일과 소련은 공히 이를 구현하려고 노력했지만, 융통성 있는 작전선과 최소저항선을 선택한 측면에서 독일이 더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경우, 모스크바로 향하는 전진로에 노력을 집중하면 소련 수도의 점령뿐만 아니라, 소련군이 모스크바로 집결하게 되어 이를 격멸하기에 유리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민스크를 거쳐 모스크바를 지향하는 중부집단군이 공격의 중심이 되어 기갑부대의 주력을 운용하였다. 또한 발트 제국을 통과하는 북부집단군과 프리페트 지역에 배비된 남부집단군 때문에 소련군 최고사령부가 독일군 주공방향의 판단에 혼란을 겪고 상당기간 고전하였다.

41) 리처드 오버리 저 · 류한수 옮김, 전게서, 123쪽.

www.kci.go.kr

그리고 독일군이 민스크에서 포위전이 완료될 때까지 진격을 중지시켰으나 구데리안은 제4군이 도착하기 전에 진격을 재개하여 소련군이 방어선을 구축하기 전인 7월 10일 다뉴브 강을 도하하였다. 구데리안 기갑부대가 소련군이 방어하지 않은 3곳을 통하여 드네프르 강을 도하한 것은 최소저항선을 선택한 것이다.

제1기갑군이 7월 하순 키예프 남쪽 벨라야체르코비를 돌파하고 부크 강과 드네프르 강 사이의 회랑을 따라 남으로 우회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로를 개방했으며 흑해 부근에서 루마니아군과 대치하던 소련군 배후를 위협하였다.

그러나 독일군은 전력을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켰다. 초기의 신속한 승리로 지휘부가 이런 과오를 저질렀다. 대용 목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단일 작전선을 유지하지 않고, 단일목표를 추구하는 수개의 작전선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소련군이 부단한 공세행동을 수행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반면, 소련군은 독일군의 중점이 사르니 북쪽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스탈린의 주장으로 소련군 주요방향을 남쪽에 두었다. 주코프는 제19군을 북카프카즈에서 벨라야체르코비로, 제16군을 트란스바이칼에서 우크라이나 중동부 세퍼커브카(지메린카 서쪽 약 35㎞ 지점)로 전환하는[42] 실수를 범했다.

기회의 이용은 이전의 군사행동으로 얻은 이점이나 전개된 상황을 적기에 이용하여 군사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독일군은 전역(戰役) 수행간 목표의 부적절한 변경으로 혼선을 초래한 반면, 소련군은 공세행동 및 피포위하 전투 등을 전개하여 유리한 기회를 적시에 활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독일군이 7월 16일 스몰렌스크를 포위하였다. 이 때 히틀러는 레닌그라드와 우크라이나를 주목표로 한 초기 구상을 실행했

42) Robert Kirchubel, Ibid., p.18.

www.kci.go.kr

다. 그는 모스크바가 위협을 받으면 소련군 예비 병력이 이곳으로 집결할 것이기 때문에 레닌그라드와 우크라이나 점령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레닌그라드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모스크바에 초대형 양익포위를 구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독일군은 소련군의 완강한 저항과 기상 악화로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 그리고 독일군의 군 사령관들은 자신의 전역(戰域)만을 생각하여 전략적 분산을 초래하였다.

독일군은 키예프 포위전에 남부집단군뿐만 아니라 중부집단군 대부분을 투입하지만 약 한 달을 허비했다. 즉, 7월 30일 독일군 제6군이 키예프를 직접 공격한다. 그리고 8월 30일에야 독일군 총참모본부는 키예프 공격을 명령한다. 9월 14일에 제3·제16 판처사단이 키예프를 포위하고, 9월 17일에야 스탈린은 키예프에서 철수를 승인했다. 그리하여 스탈린은 모스크바를 신속하게 점령하려던 히틀러의 계획에 차질을 주었다. 독일군으로서는 이전에 이룬 승리를 최종 목표에 집중하는 데 실패하였다. 반면 소련군은 전력을 보강할 시간과 방어할 의지를 북돋은 기회가 되었다. 키예프 포위전은 바르바로사 작전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43]

한편, 소련군은 전쟁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일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6월 23일 샤울라 역습을 시작으로 54회[44]의 사단급 이상 규모의 공세행동을 통하여 독일군 전력을 부단히 약화시켰다. 특히, 7월 11일 로스토프에서, 11월 14일에서 27일까지 모스크바 남부와 북부에서 이루어진 반격은 소련군이 공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소련은 민스크와 키예프 지역에 포위된 상태에서 약 한 달 동안 독일군의 진격을 지체시켰다. 이러한 전투결과, 전격전을 통하여

43) Ibid., p.18.

44) 소련군의 공세행동은 6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20회, 7월 10일부터 9월 1일까지 20회, 12월 5일까지 14회를 실시하였다.

www.kci.go.kr

소련군을 조기에 섬멸하려던 독일의 전략을 무산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소련군은 독일군이 점령한 후방지역에서 주민들의 저항활동과 결합된 빨치산 활동을 통하여 독일군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병력과 장비, 물자 공급을 방해하여 독일군의 계속적인 공격을 지체시켰다.

양측이 구상한 계획과 이의 실행 과정에서 군사전략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는 〈표 1〉 '독일과 소련 군사전략의 항목별 비교분석 결과'와 같다. 즉, 군사전략의 적합성은 양군이 대등하나, 달성가능성과 용납성 면에서는 독일군 군사전략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군사전략 실행의 효율성에서, 교란 요소는 독일군이, 기회의 이용 요소에서는 소련군이 더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1〉 독일과 소련 군사전략의 항목별 비교분석 결과

구 분	독 일	소 련
적합성	• 국가목표 달성 가능한 군사전략 목표	• 인원과 산업동원 능력을 고려하면 박격목표 달성이 가능
달성 가능성	• 소련군의 격멸, 모스크바·레닌그라드·우크라이나 점령이라는 과도한 목표 설정 • 소련의 동원능력, 종심과 정면 고려, 서유럽에서 전격전처럼 단기결전은 제한	• 국경지대를 방어하고 바로 반격한다는 초기계획은 준비 부족했고, 전격전에 대한 부적합한 대응 전략 • 깊은 종심과 넓은 정면, 부단한 역습과 국민의 저항으로 소모전 전략 수행 가능
용납성	• 민족우월주의, 민간인 학살 등 비인도적 방법은 수용 불가 • 처형 등 부당한 포로취급, 저항고조	• 조국수호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독일군 히믈러 부대의 만행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저항력으로 전환
교 란	• 소련 준비 이전에 기습적인 공격으로 1, 2단계에서 전격전 효과 발휘 • 대응목표에 이르는 작전선을 이용하여 소련의 대응중점에 혼선초래	• 수세적인 상황에서 50회 이상의 역습 및 공세활동으로 피해 강요 • 중요지역 고수하여 시간획득, 종심으로 과감한 후퇴로 표적화 회피
기회의 이용	• 적 부대격멸에 집중, 전략적 지역 및 전략목표 도달에 실패 • 지도부의 전략 목표와 수행방법 이견으로 공격속도 둔화 및 전력 분산	• 포위(레닌그라드, 민스크, 키예프)하 전투로 적 전투력 흡수 및 피해 강요 • 포위될 위험에 따라 방어선 조정, 유리한 지형 이용

www.kci.go.kr

6. 맺음말

독일군은 소련군 격멸과 레닌그라드·모스크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점령이라는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단계에서 수행 불가능한 목표를 재설정했고, 전격전으로 적 부대의 포위섬멸에 치중하고 전략목표 달성을 망각했다. 이로 인해 소련군의 항전에 따른 공격의 지체, 추위의 도래, 단기간에 군사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만심 때문에 전투력이 소진되었다. 즉, 독일군은 주요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전략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소련군은 개전 당시 군사전략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소련군은 개전 초부터 기회를 포착하여 역습과 파괴활동 등 지속적이고 부단한 공세행동으로 독일군 전력을 소모시켰다. 계획과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소련군은 전개된 상황을 바탕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구상하고 실행했다. 또한, 독일군의 민간인 학살과 포로 처형 등에 대한 반감과 전쟁에 대한 소련 국민의 공감대를 전투력으로 전환하고 반격의 기회를 만들어냈다.

끝으로 독소 전쟁 초기 전역의 함의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민족적 우월주의와 이전 전쟁의 승리에 기인한 자만심에 기반한 군사전략으로는 전쟁 목적뿐만 아니라 전략목표 달성도 어렵다. 이러한 잘못은 군사전략의 구비조건만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회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본다. 특히, 실행 가능성이 없는 군사전략은 초기의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힘들다. 둘째는 전술적 승리뿐만 아니라 개입된 상황에서 군사전략 목표 달성에 귀착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지휘관의 판단력과 사고력이 전쟁의 성패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셋째는 독일군이 범한 실수에서 얻은 교훈으로, 지휘관은 전역(戰役)에서 물리적 승리뿐만 아니라, 점령지역 주민과 포로의 마음까지

www.kci.go.kr

아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국가의 전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2016.12.31, 심사수정일: 2017.5.21, 게재확정일: 2017.5.22.]

주제어 : 기회의 이용, 실행 가능성, 군사전략, 목표, 교란, 목적

www.kci.go.kr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in the Military Strategies Adopted by Nazi Germany and Soviet Russia respectively at the Initial Stage of the Russo-German War during the Second World War's period

Lee, Jong-Ho, Jeon, Gab-Gi

This is the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military strategies in the initial stage of the Germany-USSR War in 1941. The military strategy of Germany Army has been researched and received partially as the military doctrine in the Korean Army. On the other hand, it has widely believed that the USSR's victory over the Germany in World War Ⅱ mainly depended upon its glacial winter climate and the huge territory.

Since the 17th century, Russia(USSR) has undergone many armed conflicts, and nowadays it occupies the second place of the military capability in the world and is also known as the state led developed in the military affairs. So I emphasized that USSR's military strategy must be concretely studied, by freeing from ideological and western bias. And to prepare for the future warfare, we need to study steadily and objectively estimate Russian military strategy, and research the implications of it.

In this sense, both the validity of strategic plan and the efficiency in prosecution of the strategy are to be comparatively analyzed. The validity of strategic plan is compared by the requirements of strategy (adaptability, feasibility, acceptability), and the latter is comparatively estimated by the elements of concentrated essence of strategy and tactics' which Liddell Hart presented in his book 'Strategy'. And this paper concludes with the implications of both armies' strategy. Although Germany's victory required success in destroying the Red Army and capturing Leningrad and Ukraine, constant and random counterattacks of the Red Army saved the USSR.

This study implies that there is no perfect strategic plan, but we need to recognize strategically efficient chances in developed situations and

www.kci.go.kr

effectively exploit the ideas for achievement of the ultimate end.

Keywords : Exploitation, Feasibility, Military Strategy, Object, Upset, End

www.kci.go.kr

www.kci.go.kr